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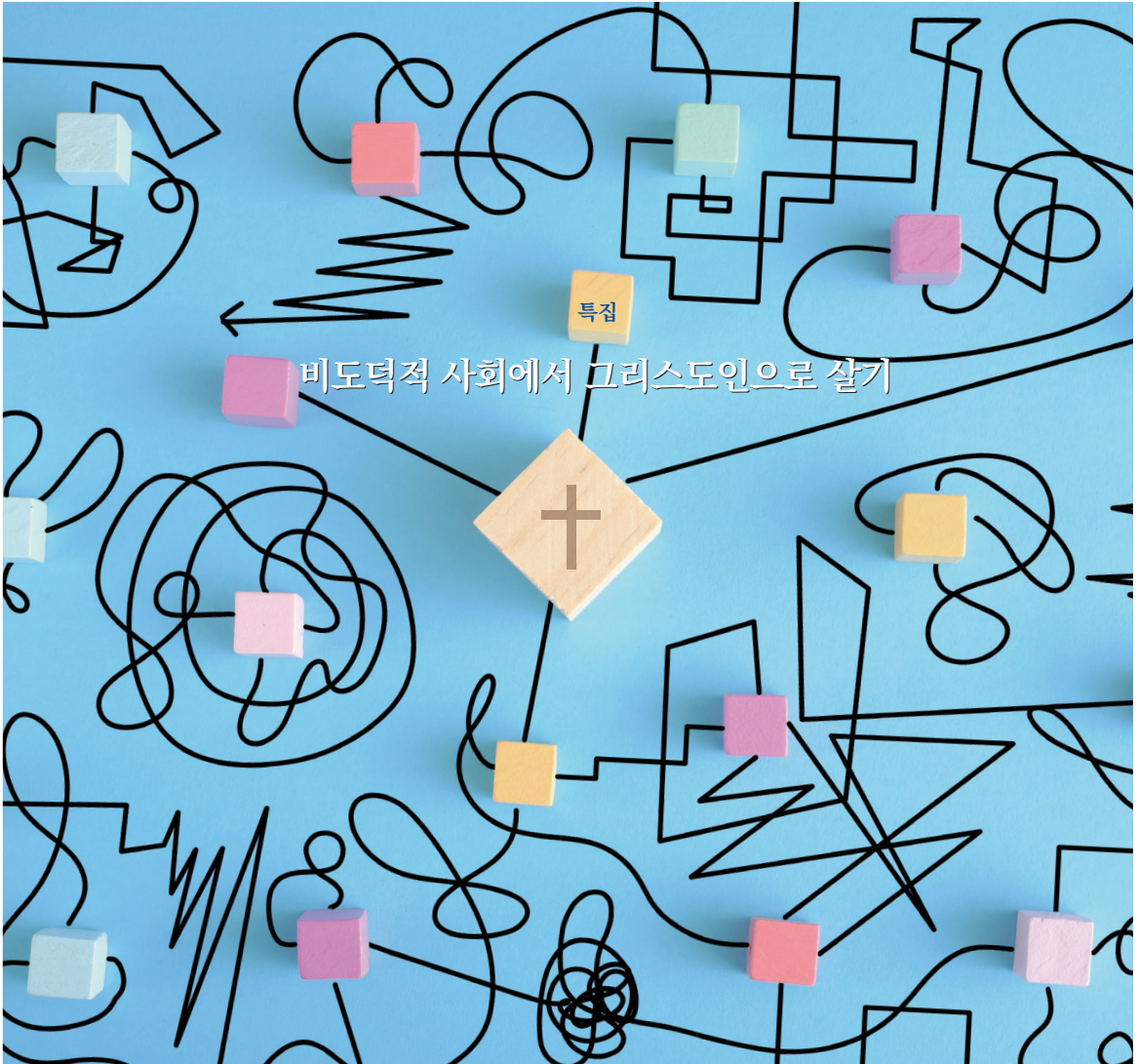
FAITH &
LIFE

신앙과 삶

9+10

SEP + OCT

2026 vol.43



특집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사람 사이 손봉호 서울대 명예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청년 시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문화로 세상 보기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ISSN 2671-8731

Contents

SEPTEMBER + OCTOBER · 2026

시선

윤리적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그리스도인이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 신국원 04

특집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당신이 있어 세상은 그만큼 더 아름답습니다 | 이상갑 06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 | 신동식 08

‘기독교’에서 ‘좋은’으로 | 정병오 10

‘Pay back’ 할 수 없는 자들의 이웃이 되자 | 이영조 12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 | 조동준 14

공평한 저울과 추, 공평한 ‘예바’와 ‘힌’ | 양성만 16

비도덕적 사회에서 한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살아가기 | 이병주 18

21세기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 김찬동 20

니버의 이질성의 기원과 공헌 | 이형주 22

새로운 도시 광장을 향하여 | 남명현 24

사람 사이

손봉호 서울대 명예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26

섬김의 자리에서

글로벌 사역 | 장수영 30



2026. 9+10월호 | 제42호(통권 258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손민서	32
우리는 왜 이럴까? 이은애	34
청년 일터 이야기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윤성훈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추태화	38
------------------------------------	----

미술을 보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 서성록	40
------------------	----

책을 보다

신실하시며,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이영희	42
그리스도인의 영화 수업을 읽고 김대원	44



교회路

광야교회 영등포 쪽방촌 & 노숙자 사역 소개

광야교회의 쪽방촌 & 노숙자 섬김 프로그램 임명희	46
소감문 :	
다시 태어난 인생 — 광야교회와 나의 이야기 최진수	47

온전한 지성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발자취 신국원	48
제11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	50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윤리적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입장이었고 예수님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물론,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최대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믿음 외에도 예배, 찬양, 감사, 전도 등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노동착취 등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윤리는 십계명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처럼 주로 소극적이다.

사람은 예외 없이 고통을 싫어한다. 죽음보다 더 싫어한다고 슈바이처가 지적했는데 안락사나 자살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을 때이다. 철학자 밀(J. S. Mill)은 이것을 “위해성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윤리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아와 과부처럼 약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는 정의에 어긋나고,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그동안 종교들이나 칸트를 위시한 철학에서는 윤리의 초점을 악행으로 고통받는 이웃 대신 행위 주체의 ‘선한 동기’에 두고 있다. 물론, 동기가 선해야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게 그거라 할 수 있지만, 이웃의 고통보다 자신의 선한 의지에 초점을 두

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윤리의 초점은 자신의 선한 동기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 맞추어야 한다.

행위 주체 중심의 윤리는 특히 오늘날에 시대착오적이다. 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정치에는 선한 동기를 중요시하는 동기윤리(Gesinnungsethik)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하고, 특히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주범이 주로 자연이었지만, 이제는 사회가 우리의 주된 현실이 되었고 루이스(C. S. Lewis)는 오늘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고 했다.

물론, 개인이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잘못된 풍속, 제도, 법, 관행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큰 해를 끼치고,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의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강자들은 이익을 본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요해질수록 자연이 가하는 것보다 사람이 가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심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개인의 의도가 악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제도, 풍속, 법, 관행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보면 약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사회를 통하여 이익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으로 도덕적인 줄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네팔의 책임은 0.01%에 불과하다 한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 국민들의 사치와 과소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아 수많은 네팔인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

다. 이런 상황은 공장이 거의 없어 지구온난화에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몽골이 사막화되고 국토가 거의 다 바닷물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에도 벌어지고 있다. 모든 선진국 국민들은 그들 주민들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잘못을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은 지구온난화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강대국 국민들의 과소비와 낭비, 공정하지 못한 모든 국제관계가 약한 나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윤리적인 삶은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살면 이방인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다(마 5:16, 벰전 2:12).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뿐만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가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되도록 각종 사회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음 전파도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교회는 이에 성공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구원과 복에만 지나친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은 소홀히 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더 책임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임을 다룹니다. <시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 복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교회 역시 자기 구원과 복에 머물렀던 태도를 회개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합니다.

<특집>의 첫 쪽지 이상갑 목사님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육신적 섬김으로 낮은 곳에 나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신동식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분 모두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신자들이 '흠여 보내는' 선교로 공적 신뢰와 선지자적 사명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정병오 대표님은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과 책임을 다하고 약자의 편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운동인 '좋은교사운동'이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영조 교수님은 인간의 죄성과 집단 이기심 때문에 사회개혁은 끊임없는 견제와 수정을 통해, 그리고 개인의 선지자적 책임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동준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가정과 일상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며, 공적 신앙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양성만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적 평가와 심사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불공정한 기준을 개선하고 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좌절을 통해 한계를 깨달은 고백과 함께,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회개와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자기 사랑'의 회복을 위한, 평신도신앙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전을 나눕니다. 김찬동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누린 축복이 사익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형주 교수님은 니버의 신학이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과 이질적인 면도 있지만, 시대정신에 비판적으로 직면하면서 복음의 본질 보존과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잘 밝혀줍니다. 남명현 간사님은 공적 신앙이 특정한 정치적 행동이나 구호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평화, 공공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손봉호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이나 이념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며, 세

상의 완전한 변혁을 기대하기보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로 겸손하게 정의와 선을 지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평생의 소신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은 진영논리나 거창한 구호보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절제하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가장 고통받는 약자를 실제로 돕는 삶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섬김의 자리>의 장수영 교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극히 작고 지역적이었지만 로마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쳤듯이, 작은 로컬 사역도 세계를 향한 글로벌 사역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역회도 큰 비전을 붙들되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영역을 깊이 탐구하며 정성껏 섬기자고 독려합니다.

<청년 시론>에서 손민서 자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은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은애 자매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윤성훈 형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드라마 <참교육>을 불의 앞에서 원칙을 지키며, 혐오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은유로 해석해, 거기에 비친 진리와 정의를 붙들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는 삶으로 저항하는 길을 조명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님은 예술이 삶과 분리된 자율적 대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한 월터스토프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치유에 참여하는 예술이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 생명력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을 보다>에서 이영희 형제는 니버가 개인보다 집단

이 훨씬 강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성, 교육, 종교만으로 인간과 사회의 불의를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집단도 도덕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소개합니다. 김대원 목사님은 추태화 교수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영화 수업>은 우리가 현대 문화의 핵심 미디어인 영화의 영성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문화선교적 관점을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교회로>에서 임명희 목사님과 최진수 형제는 광야교회가 40년 가까이 해온 섬김을 소개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자”라는 신앙고백과 소외된 이웃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실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어린 시절부터 절망에 빠졌던 청년들이 따뜻한 돌봄과 복음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자립의 길을 다시 찾게 된 간증을 들려줍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발자취를 다룬 'AI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기'를 연재합니다. 또 제11회 기독교청년학생연합 북콘서트를 통해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도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여러 사정으로 발간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애써 주신 편집위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복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은 그만큼 더 아름답습니다

이상갑 (산본교회 담임목사)



청년사역연구소를 섬기면서 참 많은 고민과 고뇌를 접한다. 청년과 젊은 사역자들의 고민, 장년 신앙인들의 고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접하곤 한다. 충격적인 일은 한 청년의 말이었다. “목사님, 저희 부서에 상무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술, 담배를 계속 권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초대형교회여서 잘 들리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은 그분의 신앙을 위선, 혼합, 타협으로 해석했다.

중종 신학생과 다양한 목사님을 상담한다. 그 상담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교회 목사님의 드러나지 않은 모습에 관한 이야기인 경우가 있다. 그것도 성 문제나 돈 문제일 경우 참 힘이 든다. 그때마다 상담을 마치면서 해 주는 이야기가 있다. “진짜가 있기에 짝퉁도 있습니다. 목사나 중직자나 직분이나 직위

를 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타산지석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맘몬과 아세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나는 청년 사역을 2002년부터 섬겼다. 지금도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로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청년사역연구소를 페이스북을 통해 섬기고 있다. 지역교회 목회자로 산본교회를 담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년과 사역자들을 상담하고 성도님들도 상담한다. 어찌다 보니 7명의 사역자와 성도들의 돈 문제, 성 문제, 다양한 탈선의 문제를 조사하고 상담하고 처리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하여 수많은 청년과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은 사연을 접하고 세습 반대 운동과는 거리를 두었던 내가 한 청년의 메시지를 받고 중심부로 들어가게 된 일이다. “목사님, 세습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돕지 않으려면 청년사역

연구소를 그만 두셔야 합니다.” 이 소리가 내게는 하나님께서 청년을 통해 내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렸다. 그래서 세습 반대 운동을 같이 하면서 4번씩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그때 많은 고민을 했다. “부, 명예, 권력을 왜 세습하려고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공적 신앙’(public faith)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사적 신앙’(private faith)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적 신앙에 머물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마저도 사유화하는 것이다. 교회와 회사를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슬픈 한국 교회의 현주소이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수십억의 전별금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호되게 비난과 비판을 직면하기도 했고, 어느 유명한 장로님은 회사를 기독교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열정페이만 요구하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 직분은 목회자요 중직자이지만 삶과 가치는 맘몬에 사로잡혀 있기에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적 신앙에 매몰되고 신앙과 삶이 세속화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과 삶의 자리는 사라지고 욕구, 욕망, 욕심을 마음껏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부, 명예,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한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거나 신앙인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진리로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삶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역겨워지게 된다. 부, 명예, 권력이 보장된 편안한 삶보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평안을 나누는 신앙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정직한 모습이다.

나는 청년사역연구소를 섬기면서 매일 글을 올린다. 그때마다 고민하며 던지는 질문이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가? 종교인이나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이 나침반이 되게 하고,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씩씩한다. 그 결과 공적 신앙, 성경적 신앙, 본질적 신앙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는 섬김과 사역을 하게 되었다. 교회의 사역과 섬김이 낮은 곳으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흘려보내는 성육신적 섬김을 지향한다. 지역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등 어려운 것으로 향하는 기관과 연결하여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이어간다. 감사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적 신앙을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보육원 섬김이 지금도 내가 만들었던 ‘아이사랑’ 동아리를 통해서 섬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에 신학대학원에서 그러한 메시지와 간증을 나누었던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동아리가 또 생겨서 기뻐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곳곳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들이다. 세상의 고통 소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그래서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분들에게 고맙다. 그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당신이 있어 세상은 그만큼 더 아름답습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갑



산본교회 담임목사이다. 아내와 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산본교회를 섬기고 있다. 청년을 사랑하여 청년사역연구소 대표,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로 섬기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하고자 작은 실천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

신동식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아버지는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신실한 신자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참으로 험난하였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였을 때 집안은 난리가 났다. 아버지가 기독교에 유독 비판적인 이유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기독교도 싫고 교회도 싫고 더구나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시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복음을 아버지에게 제대로 전하는 일이었다. 그때 주님은 프란시스 체퍼의 책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을 나누는 과정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소련의 개혁이었다. 소련이 무너지고 유럽의 지형이 바뀐 것이다. 이때 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구 사상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직한 대화의 과정을 이어갔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

이 사건은 신앙인과 목사로서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회심을 말하지만, 회심이 단지 영적인 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목회하고 있다. 교회의 평생 사명은 개혁과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흠어지고 교회가 되는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교회는 흠어지기 위하여 모이고, 모이면 세상으로 흠어지기 위하여 힘을 다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다. 세상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 바로 신자를 세상에 보내는 일이다.

니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은 어둡다.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면 집단의 이익과 권력이 개인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 그 결과 집단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정의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쉽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권력 중심으로 모이는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60% 이상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¹⁾ 부의 양극화, 권력의 탐욕,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도덕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다.

교회는 어떤가? 한국 사회는 전쟁과 극심한 가난의 시간을 매우 빠르게 극복하고 성장하였다. 여기에 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복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다. 삼박자 축복을 대변되는 한국

교회는 성장하면서 이원론적 신앙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주체가 되어버렸다. 오직 성장과 물질적 성공이 신앙의 모토가 되었으며, 주일의 삶은 월요일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직 교회당 중심이 신앙의 전부였다.

'땡 잡는 게 매'라는 속물의 논리가 교회를 침범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성공을 축복이라 포장했고, 직분은 회심의 열매가 아닌 세상적 성공의 대가로 거래되기도 했다. 신앙은 세속화되었고, 광장의 정치 구호는 강단을 점령했다. 선지자적 선언과 정치 선동이 구별되지 않는 비극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교회가 세속화되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회의 말이 세상에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다만 서로 성공하는 다른 길로 생각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는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면 나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윤실이 조사한 2026년 통계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19%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불신도는 75.4%에 이르고 있다. 중간단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교회는 영향력도 숫자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권력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교회의 도덕적 · 공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스도인은 세

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을 변혁의 자리로 이끄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 일은 지역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로 모여서 바른 복음과 정직한 질문과 답을 얻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 우선 교회는 지역에 존재하고 지역을 섬겨야 한다. 지난 22년 동안 지역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섬기는 일을 하였다. 지역교회와 연합하고 교회를 개방하였다. 재정 투명성 운동과 비빌 언덕 사역을 통하여 집을 얻는 일에 함께 하였다.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훈련하고 파송하였다. 개인적으로 기독 시민운동과 청년 운동에 힘을 다하였다. 하지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것이 공동체의 구호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 산속에 있지 않다. 신자 역시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교회로 모여 예배한다. 성경은 '문화 명령'(창 1:26-28, 2:15)을 통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라는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 이것은 신자의 신앙이 단지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명령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사명과 거룩한 영향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로 흩어져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교회로 모여 거룩을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신동식

고양시에 있는 빛과소금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문화와설교연구원'과 '개혁파선교협의회' 대표로 사역하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에서 ‘좋은’으로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 대표)



1998년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던 10여 개의 기독교사 단체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제1회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사연합’을 출범시켰다. 당시 기독교사 단체들의 주요 관심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동료에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흔히 하는 말로 학교는 황금어장이고, 복음 전도가 기독교사 제일의 가치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흩어져있던 기독교사 단체들이 하나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기독교사들의 상황과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보니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다. 기독교사들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의 불의한 구조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학교 조직에 헌신함으로 반인권이나 비교육적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 일에는 최소한

으로 헌신하고 교회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독교사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가 ‘기독교사연합’이 하나의 교육단체로 조직화 되자 교육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독교사연합의 입장과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독교사 단체들은 서로의 신앙을 돕고 정보를 교류하며 소명을 일깨우는 소그룹 사조직 형태였기에 사회적·교육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교실 수업의 붕괴, 학교폭력, 교사와 학부모의 불신 문제, 나아가 입시 경쟁의 문제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목양 공동체에 존재해 왔던 기독교사운동이 이제는 교육 운동으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부름받은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좋은교사’로 정립하는 작업을 했다. 기독교사는 먼저

교과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잘 가르치며, 교과 지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가 지닌 경이로움에 눈 뜨게 해주는 탁월한 교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각각의 아이 가운데 숨겨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할 뿐 아니라 아이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활지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입시 경쟁 체계를 학교가 더 강화하지 않고 더 순화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동료 교사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의 동반자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의 틀을 만드는 교육개혁의 전문가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독교사는 종교적인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 동료들이 보기에 가장 탁월하고 좋은 교육을 실천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회원들을 교육했다.

같은 차원에서 '기독교사연합'이라는 단체명을 일반 교육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명을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진 자원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학급 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사와 학생 일대일 결연 운동 및 결연 기금 조성', 배움이 느린 학생을 돕는 '배움 찬찬이 운동', 학급 내 금쪽이들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엄벌주의를 벗어나 성경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회복적 생활교육', 학부모와 신뢰 회복을 위한 '가정방문 운동' 등을 펼쳐왔고, 이러한 운동들은 기독교사들을 넘어 전체 일반 교사와 학교로도 확산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운동 단체로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행동도 요구받았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기독교적 교육 정책이 교회나 기독교 기관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햇빛

과 비를 주시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며, 약자가 보호받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정신을 담아 '교사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기', '아이들과 교육 본질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약자의 편에서 보기',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기' 등의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교육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9%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이다.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일반인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 있는 선한 가치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종교적 목소리만 높이고 과격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들이 '좋은교사'로 학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기독교사운동이 '좋은교사운동'이라는 교육운동 단체로서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공공성 회복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상임집행위원장이다. 공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연합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이사장,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길 찾기 과정인 오디세이학교 교사, 주님의보배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Pay back’ 할 수 없는 자들의 이웃이 되자

이영조 (아시아한림원 사무총장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인간도 잘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살펴본 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은 메시아가 직접 오시기까지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영국과 북유럽 나라들은 복지국가 건설의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복지가 권리가 되었을 때, 일을 안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고, 생산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영적 측면의 존중이 사라지자, 삶에서 신앙과 도덕의 중요성도 약화되었다.

내가 자주 방문했던 스웨덴에서는 임신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게 되자 부모 역할이 약해져서 가족의 가치에 대한 개념과 사고가 달라졌다. 영국에서는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복지를 삭감하면서도 참신한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키우고 기본 복지조차 없애버린,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된다. 독일에서는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안보는 나토를 통해서 미국에서,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경제는 중국과 협력으로라는 정책 추구로 한때 EU를 더 굳건하게 하고 세계평화에도 공헌하는 위인으로 주목받았으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즉,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고,

중국에 기술을 넘겨주므로 기계와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안보도 미국에 전처럼 의지할 수 없게 되어 유럽 쇠락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 불리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한때 회사 이익을 공산당이 아니라 회사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이 정책은 몇십 년 동안 나름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이익 분배에만 집중하여 기업의 혁신을 막고,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은 망했으며, 가중된 어려움으로 국가 내 여러 민족 집단들이 분열되어 서로 학살을 자행하는 참사를 빚었다.

따라서 나는 아무리 좋은 사회의 어떤 정책도 인간의 죄성과 집단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자체로 정의를 이루게 할 수는 없다는 니버(Reinhold Niebuhr)의 주장에 동의한다. 예시하였듯이 인간 사회에서는 선의로 시작한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본래의 뜻과 다르게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에 재앙으로까지 귀결된 경우가 빈번하다. 나는 마르크스가 가난하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스탈린과 모택동은 그들의 인간적 죄성으로 말미암아 혁명 이후 약속한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인간 사회에 어떤 시스템 확보를 통한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정책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시대에 따

라 계속 재해석하고 사회의 정의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간 사회의 정의란 집단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나는 서울대에서 개최된 '제11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에 초청 패널로 참여했다. 나는 거기서 함께 한 토론자이셨던 두 교수님이 세상의 개혁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개인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손봉호 교수님(서울대 명예교수)은 죄로 물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선지자적 사명을 품은 삶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조동준 교수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은 “내가 받은 선의·도움·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풀다”라는 의미의 ‘Pay forward’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학 시절에 도와주었던 미국인 부부를 본받아서 이제 본인도 아내와 함께 한국에 온 유학생,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을 도와 온 일들을 들려주었다. 즉, 한때 도움 받던 한 개도국 청년이 이제 다른 나라 출신의 청년들을 돕게 된 릴레이와 이 과정에서의 개인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Pay forward’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Pay back’ 즉 도저히 자신이 받은 것을 갚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는 2006년 자폐아들이 부모가 죽은 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나는 이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자체나 기관들이 자폐아 수용지로 권유했던 장소인 어느 무인도에 갔었다. 나는 거기서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여 귀양보내는 것 같다는 인식을 받았었다. 북콘서트

에서 손봉호 교수님도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이 있는 현실을 규탄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노숙인 쉼집, 중독자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함께 도우면서, 받은 것을 갚을 수 없는 분들에게 한 일들이 가장 보람이 되었던 것 같다. 영등포역전에서 노숙자들에게 침낭을 나누어 주던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한 노숙인이 다가와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그나마 따뜻하게 죽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들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25-37)에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라고 묻는 율법학자를 향하여, 그 이웃은 ‘자비를 베풀 자’임을 일깨워 주셨다. 나는 이 시대에도 “강도 맞아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약자들의 이웃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행히 이제는 우리 사회도 발달장애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채 등으로 파산하였을 때 장애인 자식과 함께, 부모가 동반 자살한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꿈꾼다. 특히 우리 사회가 ‘Pay back’ 할 수 없는 분들을 더 친절하게 더 많이 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영조



아시아한림원(AASSA) 사무총장, 단국대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이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계층 일반화 선형모형’(HGLM)과 ‘계층 우도’ 개념을 개발하여 데이터 과학 추론의 새 패러다임을 열었다.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회장,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석좌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한국과학상(2015), 대한민국학술원상(2020)을 수상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적인 영역에서 먼저 드러난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일상적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 가장 가까이 교류하는 이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적 영역에서 믿음을 감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적 영역에서만 머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니느웨의 사람들과 가축까지 아끼셨다(온 4:11).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 나아가 창조 세계 전체를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믿음의 실천이 나 자신과 가족, 가까운 이들의 안전과 번영에 주로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창조 질서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사적 삶은 공적 영역의 제도와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는 편법을 찾으려는 유혹에 놓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거나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공적 삶에서 신앙을 일관되게 실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경건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정직과 공정,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20대 어느 날 예산을 유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 있다. 당시에는 큰 약속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상대적으로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20대에 했던

약속을 마음에 품게 되면서, 다른 일에서도 믿음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민감하게 되었다. 작은 약속 하나가 공적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일깨우는 기준이 되었다.

그 약속 후 30년이 넘게 지나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눅 16:10)라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작은 일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공개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추문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지혜롭게 벗어난 경험도 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기보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0대 초반 유학 중 미국인 노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추수감사절에 집에 초대해서 가정식 식사를 대접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를 먼저 주시고, 미국 지방정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작은 정치 모임에 데려가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분들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 ‘pay it forward’ (받은 사랑을 나누라)라고 권면하신 적이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에게 베풀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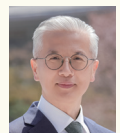
20년이 넘게 지난 후 한국에 온 인도 출신 유학생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더니, 그 학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인도 출신 유학생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유학생이 한국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보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린다.

공적 영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고

권하고 싶다. 먼저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공적 영역에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로 하나님의 온화한 성품이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분들이 억지로 웃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사회는 조금 더 웃음을 담을 수 있다.

작은 일에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을 꾸준히 지켜 나갈 때 믿음이 자연스럽게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공적 영역에서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특정 진영의 논리를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각자에서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맡은 일을 수행하고, 약자를 존중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국제기구 내에서 정치활동 국제 분쟁, 핵무기 확산의 영향 등을 연구한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부(B.A.) 및 석사(M.A.),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정치학과에서 국제기구 연구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부원장(2021-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2016-2018),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2005-2010),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2021-2025)을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2018년)을 수상했다.

공평한 저울과 추, 공평한 ‘에바’와 ‘힌’¹⁾

양성만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 서양철학)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 제도와 조직에 몸담고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관행과 신앙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기도 한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사람과 조직을 공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귀는 벨사살 왕의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이었다(단 5:24-31). 그 뜻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함이 나타났고, 그래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의 국권은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갔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선포되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선언대로 치죄하셨고,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불의 심판을 통해 이 점을 재차 확인하셨다. 이처럼 선과 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의 기초라고 구약의 시인은 찬양한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므로 최종적인 심판이 유보되고 있지만,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심판주 앞으로 불려 나와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도 의와 공평이 이 땅에서 실행되기를 원하신다. 모세는 이렇게 명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레 19:35,36) 모세는 공적인 죄를 판결하는 재판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량형을 나란히 제시하여 의와 공평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과 평가가 같은 일은 아니지만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치우침이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사람의 심판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재판을 행사하고 상벌을 시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크고 작은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층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평가는 필수적이다. 공평한 에바와 힌은 상거래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와 재판이 방해를 받는다. 먼저 해당 분야의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곡물의 양을 평가할 때

는 부피나 무게를 재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학생의 성적을 매길 때에는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학습 목표 달성도, 시험 성적, 과제 수행도, 수업 참여도, 출석 및 수업 태도 등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여러 요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만으로 공정한 평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고, 평가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과정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판정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학기마다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야 했다. 그 때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적용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평가의 엄격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학생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교육적 융통성은 어느 정도로 베풀어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낙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은근한 압력, 또 다른 동료 교수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학 종합 평가에 참여하여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와 대학의 높은 성취도를 과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을 이루었다.

평가에 따라 자격이나 혜택이 주어지고 지원사업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사회에서 그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한 건축학과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을 배합할 때 재료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라고 한다. 감독기관의 평가는 사전 통보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기 십상이란단. 도로를 포장할 때는 아스팔트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어느 지점을 검사해야 할지는 시공업체가 지정한다고 한다. 그런 행태가 관행처럼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관행이 그 교수가 목격한 몇 경우에 국한된 현상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평가에 참여하게 될 때는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의 이해에 따라 알게 모르게 저울추가 기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기준이 정말 공정한지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혹시 겉에 있는 약자가 힘에 밀려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볼 때에는 만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저울은 늘 불완전하다. 저울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유희와 사회의 압박과 싸워야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손에 들려 있는 저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 저울추가 공정한 저울추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여 내가 내리는 평가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수고와 쌓일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고려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최근 은퇴할 때까지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철학)로 재직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이사 및 〈신앙과 삶〉 편집 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 마이클 고헌(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켈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1)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고체를 재는 단위)와 공평한 '한'(액체를 재는 단위)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6).

비도덕적 사회에서 한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살아가기

이병주 (변호사 / 평신도신앙실천운동 대표)

필자는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법률가와 시민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도덕과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인생의 질문으로 계속 풀어가면서 살아왔다. 1980년대 20대에는 군부독재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투옥과 제적도 경험하면서 세상의 여러 면에서 '비도덕적 사회'를 고치기 위한 '도덕적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 있었다. 1990년 무렵 운동을 그만두면서 "아! 세상을 완전한 '도덕적 사회'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완전한 '도덕적 인간'으로 되는 것도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으로 깊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던 시간도 있었다.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에 대한 꿈과 이상이 무너진 빈 공간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수 있었다. "사람의 힘으로 완전한 세상과 온전한 인간을 만들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겠!"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쓴 글로 보기에는 너무나 내공이 깊은 성경의 구절들이 이 생각을 뒷받침했다. 2000년 무렵 처음 믿는 기독교 신앙의 자리는 이렇게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이 무너진 폐허 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었다. 실존적 인간과 절대적 하나님이 만나는 기쁨 속에,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의 문제는 사라지거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2010년경부터 기독교법률가회(CLF) 활동에 참여했다. 기독교법률가회에서의 토론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한 영역을 책임지겠다는 주체성과 함께 믿음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의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이 무너진 충격적 상황에서, 피해 가족들을 공격하는 냉혹한 발언들이 유력한 목사들 입에서 터져나왔다. 총리로 내정되었던 어떤 장로는 "일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상당수 신학자들은 이 발언이 정당한 신정론이라고 옹호했다. 욕먹는 목사, 욕먹는 장로에 욕먹는 신학자들까지 나온 상황에서 필자는 더 이상 목회자나 신학자에게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료들과 함께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글로 토론을 진행했다. 2017년 명성교회 사태와 사랑의교회 사태, 최근의 전광훈 사태로,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은 더 심화되었다. 과연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가 제안한 새로운 방법론은 '현실적 접근법'이다.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을 주관적인 윤리나 영성의 부족보다 객관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왜곡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적'인 경제생활과 '공적'인 사회·정치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와 교인들은 신앙의 '초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적 욕망'과 '공적 무책임'이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 거룩함'을 압도하며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과 초월적 영역에 대한 혼동과 오해'이다.

예수님이 주신 이중 계명,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에는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되는 ‘자기 사랑’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초월적’인 신앙생활에,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시민 생활에,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적’으로 먹고사는 경제 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 > 자기 사랑’의 순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때 우리 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자기 사랑 >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의 순서이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자기 사랑의 사적 욕망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의 수단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까지 놀려버리는 우리의 ‘자기 사랑’은 ‘사적 욕망에 지배당하는 교인과 교회’를 만들어낸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대형교회들의 만행은 이렇게 교회 안에 오염되고 농축된 신앙적 자기 사랑의 필연적 폭발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얘기했는데, 우리 현실은 사적으로 ‘비도덕적 인간’과 공적으로 ‘비도덕적 사회’와 나아가 초월적으로 ‘비도덕적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죄와 욕망은 개인적인 비도덕뿐 아니라, 집단적인 비도덕을 만들고, 초월적인 비도덕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에 스며드는 ‘사적’ 욕망과 자기 사랑에 대한 인정과 고민이 필요하다.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100% 거룩하거나 정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무관심은 교회의 사회적 무책임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집단적 자기 사랑’은 오히려 사회의 공적 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한국교회의 ‘초월’이 ‘사’에 오염된 초월, ‘공’이 사라진 초월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욕먹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 공, 초월 세 영역 모두에서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은 진정한 세 가지 사랑의 회복, 즉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진정한 ‘이웃 사랑’과 진정한 ‘자기 사랑’을 찾는 것이다. 초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자기 사랑을 이해해 주시는 편만한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불편한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는 신앙적인 회개, 공적인 측면에서는 부업을 통한 자선적 이웃 사랑에서 사회정치적 책임과 본업을 통한 공적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회개, 사적으로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모두 잡아먹어 버리는 자기 사랑의 괴력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 충만한 자기 사랑의 힘과 씨름을 전개하는 현실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사적 영역의 회개와 공적 영역의 회개는 평신도의 몫이고 평신도의 책임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평신도 신앙 운동으로서 평신도들의 신학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신도 신학 과정’과 ‘세상 속 복음, 교회 밖 신앙’을 만들어 나갈 평신도협회 성격의 단체로 ‘평신도신앙실천 운동’을 만들어서, ‘욕먹는 기독교’에 대한 평신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할 때까지는 해보다가 죽자는 생각으로, FAITH & LIFE



글쓴이 이병주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이자 한국교회 갱신을 목표로 활동하는 ‘평신도신앙실천운동’의 대표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고,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평신도 대중단체 연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욕쿠스: 욕해야 하는 인간>,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평신도의 발견 개정증보판),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십니까> 등이 있다.

21세기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찬동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 경제적인 발전과 정치적인 민주화의 성장, 기술혁신과 세계 속에 한국 문화 확산의 축복도 경험하였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질서 속에서 다수가 한국 사회의 주류 계층과 특권층의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하고, 이로 인하여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구제와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해외에까지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척 시기를 거쳐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건축과 확장이 가능하였던 성장기를 거치면서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확장한 경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조직은 마치 대기업과 같은 재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교회 조직에 고용된 직원이나 부교역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 많은 경우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성도들이 알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가 친인척들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버린다는지, 사회경제적 윤리의 경계선을 넘어 부도덕한 행위들까지, 심지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들까지 한국교회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교회가 작은 규모일 때는 개척자의 비전과 리더십, 열정과 헌신이 교회 조직과 성장의 씨앗이 되었지만, 성장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직 운영에서의 공공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일정한 규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 구성이나 운영이 시민사회의 일반 조직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민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세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고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을 통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워서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적용되는 일반법도 지키지 못하여 비도덕적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세상 법의 판단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21세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특권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득권의 안일함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문예출판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특권은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가장 순수하고 맑은 정신조차도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흐려지게 마련이다. 프롤레타리아적 열망이 간직한 순수한 도덕성을 인정치 않으려 할 때만큼 중산층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드물다. 중산층은 중요치 않은 덕과 중대한 악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체제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도덕을 진실하게 평가할 만큼 높은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니버, 247면). 즉,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사랑과 헌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포장하지만,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특권으로 인하여 부정직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이중성과 위선,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성경의 이름으로 짓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교회가 복음 사역과 선교를 지속하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도 사사회의 함정을 빠져나와 공공성을 구비하려는 노력을 힘써야 한다.

“특권계급에 속해 있으면, 사회적 불의가 사회 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의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특권계급은 사회에서의 자율적인 진보를 안일하게 믿고 있는 지도 모른다”(니버, 250면).

필자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미 특권 계급화되어, 사회의 자율적인 진보를 안일하게 믿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 둔감하고 안일하게 현재의 사회구조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사회적 영향력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된 삶을 잘 살도록, 실천하는 신앙과 삶의 예배가 더 충만해져야 한다. 교회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정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눈감기보다, 공동선을 연구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를 통해 실현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고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공동체의 내부에서 ‘사익’이라는 우상의 실체를 알고 경계하고, 그것으로 인한 죄악을 회개하고, 공공성을 세우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을 주도하고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공동선의 모범적 나라가 되어, 인류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열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위 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비전과 꿈에 사용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공공 신학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찬돈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행정학) 교수이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오들교회(해외한인장로회 교단소속) 장로이다. 안식년을 맞아 전공과 신학의 융합 연구를 위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에서 연구하며, 기독교사회윤리학회에 정교분리 이론을 응용한 자치와 정치의 분리가 한국 지방자치제도를 건강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니버의 이질성의 기원과 공헌

이형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지난 8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에 참석하며 가졌던 생각의 일부를 나누고자 한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북콘서트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한 학기 동안 함께 읽은 내용을 장별로 요약해서 발제하고 각 장에 담긴 내용을 주제로 청중과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토론 중간에 니버의 신학적 접근 방식이 지닌 이질성에 대한 비판들이 나왔고, 과연 니버의 작업을 기독교 신학적 작업으로 볼 수 있는가를 묻는 비평적 질문에까지 이르렀다.

니버의 신학 방법론과 전통적 신학 방법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이질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편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니버가 현 신학자들 사이에서 바르트나 틸리히와 더불어 20세기 서구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주요 학자들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을 기독교 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 또한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왜 니버가 굳이 기존 신학 전통과 구별되는 방법론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했는가에 있다.

올해 초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융합기독교학이라는 전공 분야가 신설되었고 필자가 담당 교수로

임용되었다. 학교에 부임하고 "연세 신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학문과의 상호작용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흔히 오해되는 기독교 신학은 사실 지난 이천 년 역사 동안 태생부터 '융합적'이었다는 점에서 융합기독교학의 신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교의 결과로 교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로마를 둘러싼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그리스 철학과 융합되었고, 2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인 '로고스'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3세기 교부였던 오리게네스의 신학화 작업이 당대 사고의 근간이 되었던 플라톤/신플라톤 철학과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자명하고,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이루어진 기독교 신학의 체계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진 시대 정신과의 끊임없는 융합적 작업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체계화된 기독교 신학은 수백년을 아우르는 중세 시대 전반에 걸쳐 서구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 13세기 들어 아퀴나스에 의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전통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학 사조가 형성되었다. 아퀴나스 신학의 이질성은 당대의 신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건설적 비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 기저에는 아퀴나스의 작업을 신학적 작업으로 볼 수 있겠냐는 비평적 질문이 자리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구원사'라는 견고하게 형성된 고유한 역사적 틀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들을 체계화한 데 반해서, 아퀴나스는 전통적인 역사적 틀에서 벗어나 기존 교리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기존의 신학 전통과 확연히 구별됨에도 아퀴나스의 신학적 작업이 호응을 얻어 오늘날의 기독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루어진 아퀴나스의 신학적 작업이 당대의 사조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반해, 그것과 어우러지는 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기반했던 플라톤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13세기 중세 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에, 이에 기반한 새로운 틀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체계화된 신학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니버의 새로운 시도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기독교 전통은 근대 정신에 의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는데, 그중 하나는 역사적 타락을 전제한 원죄 교리에 가해진 비판이었다. 전통적 원죄 교리가 인간의 본질적 선함/자유/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게 만든 근대 정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니버가 활동했던 시기는 다윈의 진화 이론이 기독교 신학 전통이 고수해온 역사관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니버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아우르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차용해온 역사적 틀에 의존하지 않는 니버 신학의 이질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니버는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전통에서 규명한 '불필요하나 불가피한' 죄의 본질적 요소를 역사적 틀에 의존하지 않고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시대 정신의 도전을 직면하면서도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니버가 20세기 기독교 신학에 큰 반향을 일으킨 신학자로 거론되는 것은 그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20세기의 시대 정신과 어우러지게 하는 새로운 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봤을 때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니버의 이질성의 공헌은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20세기에 만연했던 시대 정신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적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을 재구성한 결과라는 데 있다. 신학자의 책무가 신앙에 본질적인 요소를 분별하고 그것을 시대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면, 니버의 독특한 이질적 작업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들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형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에서 융합기독교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우주론 연구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연합신학대학원(GTU)의 '신학과 과학' 분과에서 현대 우주론과 기독교 신학 교리들 간의 상호작용 연구로 두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학과 과학의 창조적 쌍방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 광장을 향하여

남명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공적 신앙이란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즉, 신앙을 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정의와 평화,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과 삶을 뜻한다. 문제는 이것이 청년 세대에게 교회의 역할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 청년 세대가 공적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적 신앙에 머무는 까닭은 부모 세대로부터 광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 세대의 잘못은 아니다. 부모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다고보다는 청년 세대가 배움을 얻지 못했다. 애당초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 광장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금연과 금주, 식사기도 역시 더는 구별된 삶의 표지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세상에서 공적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그것이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때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고

섬기던 시대가 있었다. 구한말 조선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자를 치료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다. 선교사들은 고아, 빈민, 환자, 여성,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구제하고, 교육하고, 치료했다. 이들에게 복음 전파는 인간답게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와 같은 공적 가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은 비도덕적 사회에서 공적 신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이러한 공적 신앙과 삶의 양태는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 재건이라는 격변의 시기까지 이어졌다. 전후 한국은 절대적 빈곤 상태였고, 정부 재정만으로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었다. 이에 미국 각 교단의 원조로 설립·운영된 기독교 사학들이 문맹 퇴치, 중·고등교육 확대, 여성 교육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기독교 병원들은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무상으로 치료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복지제도가 사실상 전무했던 1950~70년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기관의 대다수는 교회가 세

우고 운영했다. 즉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복지의 공백을 교회가 실질적으로 떠맡았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교회의 공적 신앙도 성장통을 겪게 된다. 사립학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대형 사학은 여러 이권을 놓고 온갖 비리로 부패하게 된다. 이후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학법을 제정해서 사학을 감독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기독교 교육이 크게 약화되었다. 의료기관 또한 마찬가지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채플이나 원목실 같은 기독교 정체성이 일부 남아 있지만, 실제 병원 현장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의학적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이 지배하고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의 설립 주체를 보면, 종교재단(세브란스, 서울성모) 외에도 국가(서울대)와 기업(아산, 삼성서울)이 있으며, 특히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확립되면서 진료나 병원 운영에서 종교적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다. 사회복지 영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면서 복지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다수의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이 기독교 재단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국가의 지원과 감독 아래 위탁 운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 의료, 복지 등 과거 교회가 담당했던 여러 공적 영역들이 오늘날에는 복지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광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더는 교회의 역할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지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과거의 유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 광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복지국가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보살피고 있다면, 우리는 구한말 선교사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저개발국으로 나갈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영역에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선교 현장에서 기존의 공적 신앙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적 신앙을 실천하는 일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복지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교회의 공적 역할이 남아 있다. 교회는 국가가 신경도 쓰지 않거나, 지원할 자원이나 정치적 의지가 없는 선한 일들을 찾아 진지하게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공적 신앙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정의와 평화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정의와 평화와 공공선을 위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FAITH & LIFE



글쓴이 남명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철학을 공부했다(B.A.). 학부 시절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대학총교회 전도사, 서울대 기독교생 북클럽 간사로 섬기고 있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손봉호 서울대 명예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오늘의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그리스도인 역시 개인의 구원과 경건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정직 · 공정 · 책임 · 희생 · 약자보호를 실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려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진영논리와 혐오, 갈등의 언어에 사로잡히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에 이번 호 ‘사람 사이’는 오랫동안 기독교윤리, 신앙과 삶의 일치, 사회적 책임, 약자 중심의 윤리, 시민운동과 정의를 강조해 오신 손봉호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적 신앙’(private faith)의 한계를 넘어 ‘공적 신앙’(public faith)을 회복하고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혜안을 나누고자 한다.

인터뷰어 : 석종준(서울대 기독교생복클럽 지도목사)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소나무 카페(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석종준 교수님께서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의 삶을 상징하는 태도로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중요하며, 이것은 단순한 비관주의나 냉소주의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손봉호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니까 용어가 너무 거창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경고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비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며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외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수행했고,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를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냉소주의나 비관주의는 이를

수 없기에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윤리 운동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에만 적용해야 하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참을 강권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전자에 속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평소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 여부에 관한 교수님의 진단,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과 삶’의 이원화 결과로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봉호 우선 신앙과 삶의 완전한 일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언행일치’란 모두에게 힘듭니다.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말은 잘 하지만 행동이 거기에 따르기는 어려우므로 위선이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과 삶의 불일치가 한국교회만의 약점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일치의 정도가 좀 심하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많겠지만, 그 하나는 유교적 문화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므로 ‘마음속의 경찰’이 없어서 겉치레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이에 일조한다고 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자유주의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특강 초청을 받았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해요. 누가 손봉호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모두 자유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분명 이신칭의와 더불어 순종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거리가 커진 것입니다.

석종준 최근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적 소신이나 ‘공적 신앙’을 드러내려 할 때, 진영논리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으로 내몰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과 ‘진영논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손봉호 우리 사회도 요즘 이념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보수 아니면 진보라고 비판을 받아요. 이념이란 단순화해서 ‘사명을 가진 정치 이론’ (political theory with mission)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이론과 거기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함축한 것입니다. 본래 이론에는 원칙적으로 ‘사명’ 같은 게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19세기 마르크스는 자기 이론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옳으므로 그 이론에 따라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모두 ‘이념’(거짓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전형적인 ‘이념’이란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역사 철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은 역사 발전의 법칙 같은 것은 아예 없다는 것에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사람들은 사회 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폄하하고 심지어 타도 대상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힘이 약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념적이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념이 일종의 우상이라고 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칼 포퍼(Karl Popper)의 ‘점진적 사회공학’(piecemeal engineering)이 훨씬 더 겸손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회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유토피아적 전체주의가 아니라, 마치 기계의 고장 난 부분만 수리하듯 우선 분명하게 비민주적이고 정의에 어긋난 사회악과 고통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윤리는 이념과 다릅니다.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회 활동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이 아니라 성경의 정의와 윤리에 근거하되 다만 제가 주장한 ‘선지자적 비판주의’의 태도로 겸손하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석종준 약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약자’는 누구일까요? 장애인, 이주민, 노인, 빈곤층, 성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더 우선적으로 도와야 할까요?

손봉호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이 사회에서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을 우선 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苦痛)에는 ‘고’(苦)가 있고 ‘통’(痛)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보다 ‘통’이 더 심각해요. 이픔은 육체적인 것에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에 심리적, 사회적 ‘통’이 따른다고 봅니다. 노동도 할 수가 없으므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가장 취약한 약자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반세기 이상 장애인 운동을 해 왔습니다. “누가 약자인가?”를 따지기 전에 바로 눈앞에서 아파하는 사람부터 돕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평소에 사치와 낭비를 절제해서 능력을 비축해야 할 것입니다.

석종준 어떤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돕는 일을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약자에 대한 섬김이 단순한 선택적 자선이나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손봉호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그렇게 요약하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배, 찬양, 기도, 회개 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사랑의 핵심은 약자 보호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정의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존 롤스 (John Rawls)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는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 바로 그런 정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적인 사명이자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 5:16, 뱀전 2:11-13).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을 도우면 이방인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석종준 교수님께서서는 교회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과 자기계발, 자기 이익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손해 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봉호 첫째,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경쟁하고 애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생존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성경적 희생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강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경쟁

자를 죄짓게 하고 불의를 강화하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나 경쟁상대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도 내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경적 미덕일 것입니다. 우리의 양보와 희생은 이웃의 실제적인 이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지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것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을 미화하는 것은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금식하는 행위 같은 위선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종준 교수님께서서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손봉호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한 것, 즉 윤리적 실패”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나토’(NATO)가 심각합니다. 즉 ‘말 만하고 행동하지 않는’(No Action, Talk Only) 것 입니다. 불신자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삶은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말 만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복음도 전해야 하고 믿는 자의 모습은 보여주고 싶은데 힘들고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릅니다(약 1:15). 욕심을 억누르는 대신 욕심을 채우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은 좀 적게 하고 실천에 좀 더 무게를 두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줄여서 손해도 감수하고 웬만하면 양보하려고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의를 매우 강조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라는 성경의 정의는 이해하기가 매우 쉽고 구체적이며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제일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겠어요?

석종준 우리 시대 청년들은 취업, 경쟁, 주거, 결혼, 경제적 불안 등 여러 현실적 문제의 직면한 채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삶의 내용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손봉호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로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네들보다 더 힘들었다. 우리는 사실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아예 생물학적으로 굶어가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몇 마디 잔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시간을 아끼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청년 때의 한 시간은 저 같은 노인의 열 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놀이에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까? 둘째, 무슨 일이든 생산적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삶에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좀 힘들고 보수가 낮은 일이라도 우선 할 수 있으면 하면서 경험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지나친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기성세대가 당면했던 것만큼 공익을 위해 시간을 바쳐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사회와 인간에 대해서 더 알고 난 다음에 더 성숙한 방식으로 공익을 위해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글로벌 사역

장수영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명예교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된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학부생 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마틴 스코르세이지(Martin Scorsese) 감독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을 인용한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 주변에서는 보기 드문 다소 특별한 인물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드러나는 인물들의 개인적인 모습의 기괴한 내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영화의 관객들은 극중 인물들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에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인간 조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드러나는 보편적 토대 위에서 기괴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생충>의 서사는 널리 공감되는 작품이 된다.

사적인 이야기는 특정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기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적인 사정이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알뜰하게 귀 기울여 살피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음, 나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이해에 이르게 되곤 한다. 어쩌면 사적인 이야기가 공감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히’ 깊은 헤

아림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깊은 헤아림으로 풀어내는 사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폭넓은 보편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이라는 묘한 신조어는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뜻의 ‘로컬’과 보편성을 의미하는 ‘글로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극히 모순적으로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 지극히 사적인 것이 보편적 공감을 가져 오는 창의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추어본다면,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글로벌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역의 특수성도 충분히 깊게 탐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탐구의 끝에서 매우 보편적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는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그 뿌리를 찾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인간 조건, 삶의 본질, 모든 생의 한계와 고뇌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정 지역의 문제에 대한 알뜰한 이해, 그 이해에서 발견되는 보다 깊은 깨달음은 그 지역의 문제를 넘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글로벌하지 못한 지역성은 아직 ‘충분히’ 지역적이

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해 전에 성지 순례를 돌며 갈리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제법 높은 언덕 위에서 순례길을 안내해 주시던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때가 기억난다. “저 호수 너머 보이는 호수 변이 예수님께서 광인을 치유하신 거라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허리를 살짝 돌리시며 “이쪽으로 보이는 저 고개 넘어가 혼인 잔치가 있었던 가나고요. 그 길로 쪽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가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곳으로 추정되는 언덕도 멀리 보였다. 처음 물고기를 낚던 베드로를 부르신 곳도, 부활하시어 베드로를 찾으셨던 곳도 가까이 보이는 호숫가라는 말도 들었다. 나는 “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참으로 작은 지역에서 이루어졌구나”하는 생각에 먹먹해지는 가슴을 안고 언덕 주변을 내려다보던 기억이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삼 년 기간 중 매우 좁은 지역에 머무르셨다. 언젠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던 중 그 출장 한번에서 미국을 왕복하는 비행 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삼 년 기간 내내 다니셨던 길의 길이 모두를 더한 것보다 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허탈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다.

예수님은 방문하셨던 지역의 범위가 작았던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제자도 불과 열두 명에 그치는 아주 작은 지역적인 사역을 하셨다. 하지만, 그 사도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과 방대한 유럽 그리고 온 세상을 뒤집는 새 역사를 쓴다. 지극히 지역적인 예수님의 로컬 사역이 전 지구적인 글로벌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지극히 유대적이었지만,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글로벌’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걸맞는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내 사역은 왜 이리 작기만 할까?,” “이 사역은 내가 그만두면 남아 있거나 할까?” 종종 우리는 이런 걱정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 물론 커다란 비전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일도 칭송할 만한 일이며 크고 오래 지속되는 사역을 꿈꾸는 것은 기릴 만한 일이다. 다만, 아무리 작고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역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역이 갖는 특별함에 깊이 천착하며 한 줌에 잡힐 것 같은 적은 수의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그들을 알뜰히 섬긴다면 주님은 그 사역을 반드시 돌아보신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47)

예수님 사역의 본을 따라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도 글로벌 사역으로 거듭나길 소망해 본다. 모든 학문의 지경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크고 가슴 두근거리는 소망을 굳게 잡되 내 손에 잡혀 주신 좁아만 보이는 학문의 지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 돌봐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알뜰하게 섬기는 일에 천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명예교수이다. ‘크리스천과학기술인포럼’과 (사)‘나눔과기술’ 그리고 ‘적정기술학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의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현재 (사)나눔과기술 이사이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사로 섬기고 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손민서 (서울대학교 교육공학 석사과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그로부터 비롯된 주변의 열매로 완성된다. 특히 후자를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에 대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개인주의와 내가 속한 집단의 공적과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의심과 좌절에 빠지게 한다. 이번 시론에서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세상의 배척과 자기 의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누고자 한다.

나는 다소 늦은 나이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학부 때 세 개의 전공을 공부하고도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시간이 길었다. 지도 없이 광야를 걷는 나그네처럼 살던 내가 비교적 오래 머무른 일은 프리랜서 강사였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사교육 업계 내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학원과 계약을 맺었고, 엄청난 월세를 자랑하는 강남 한복판으로 출퇴근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출강을 다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 구석을 불편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거하고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쓰시는 모습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리고 나 역시 많은 학생의 지적 성장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신경쓰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가르치고자 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을 낮설어하며 이상한 시선으로 보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에 나의 행동은 과한 오지랖이자 선을 넘는 일이었으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였다. 반대로 이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자녀의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선한 일을 위해 끝까지 애써본 적이 많지 않던 나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이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모두가 좋아해 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았으나 크고 작은 거부와 저항, 비판을 마주하면서 근본적인 혼란이 찾아왔다.

외부의 목소리보다 더 시험이 되었던 것은 깊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기비판과 자기 의심의 목소리



였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은 아닌지, 결국 다 자기합리화이고 자기 위선적 행동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사랑하며 사는 게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몹시 지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두고 싶은 날들이 심심찮게 찾아오고는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고 괴로워서 정작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결국 나의 인간적 힘을 끌어모아 아등바등 버티기 시작했고, 주변의 반응에 일회일비하는 삶으로 빠져들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눈치채고 붙들어준 이들이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보로 조금씩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고, 나의 부족함과 깨진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고, 실망하며, 때론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하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전까지 예쁘게 정제된 상태로 드리려 했던 기도 또한 점차 솔직하고 거칠어졌으며 그 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법을 배워갔다.

환경이 바뀐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 예상

은 했지만 그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를 나누고 중보할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무엇보다 내가 구할 때마다 얼마든지 더하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점차 더 깊이 신뢰하는 중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거절과 오해, 자기 불신 속에 우리의 심령이 남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제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정을 함께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민서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공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학부에서 교육학, 영어영문학, 뇌인지과학을 전공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소명이 있으며 주된 연구 관심사는 ‘학습 과학’, ‘인간-AI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왜 이럴까?

이은애 (서울대학교 작곡과 학부생)



얼마 전, 한 수업의 O.T. 시간에서 최근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문을 적어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나는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적었다. 그날은 부모님과도, 친구와도 사소한 이유로 다투었던 날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좀 더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면, 일어나지 않았거나 최소한 더 심해지지는 않았을 다름이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도 오늘도 실패했다는 생각은 늘 나를 편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럴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 그중에서도 개신교 인구는 총 약 천만 명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5가량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세상과 사회에서도 그 사랑의 흔적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당장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수많은 정치인들을 봐도, 교회에서는 장로나 권사, 집사 등 중직을 맡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다시 정치판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에 바쁘다. 비단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다.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서, 정작 내 주변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처럼

당장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거나,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 굳이 사회로 나갈 필요도 없이 교회 내와 그 구성원들에게도 그렇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내에서 리더도 하는 친구들이 캠퍼스를 비롯한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국교회의 상황을 둘러봤을 때, 교회와 교회 간, 또는 성도 간 견제와 다툼은 얼마나 심한가?

지난 봄 학기 중에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클럽 정기 모임에서 다루게 된 책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니버)의 주제 또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일부 설명하고 있다. 도덕적 개인이 모여 구성된 사회이더라도, 그 사회는 결국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설명한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종교의 기본적 교리인 사랑이 개인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집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한 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적 이기심’을 꼽는다. 이 집단적 이기심은 개인적인 욕구와 도덕보다 더 강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때로는 타 집단에 대한 극도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와 도덕

의 탈을 쓴 이기심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은 꽤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머니에게서 그 시절 대학 내 노방전도, 성탄절 전도 행사 등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재의 상황과 비교되어 더욱 씁쓸해지고는 한다. 최근 들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토록 급격히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종교 집회와 전도 활동으로 인한 대확산, 특정 정당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지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주변 동기들 또는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펴보면 캠퍼스 내 끈질긴 노방전도, 동성애와 퀴어에 대한 반대 의견, 특정 집단들의 정치색 표시에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비난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비난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비난을 신앙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것(마 5:11-12, 요 15:18-19)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난과 고난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세상에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회를 보는 시선은 '우리'와 '그들'로 구분될 수 없다. 예수님을 알든, 아직 알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어린양이기 때문이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기에 앞서 한발 물러나 기도로 먼저 주님께 간구해야 할 때이다.

지금도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다. 그 이유를 처

음에는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사회에서 그들을 규정하는 것처럼 '광신도'라고 취급받거나, 다른 모든 것보다 종교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기를 살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내가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세상의 기준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기 전, 사회에서 비난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나는 여전히 예민하고, 고집이 세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쉽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배운 진리대로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의 죄악은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부족함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은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이다. 부전공으로 음악학, 연계 전공으로 '뇌-마음-행동' 과정을 함께 이수 중이다. 남서울은혜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 기독교동체로는 서울대기독교연합 중앙위원(2026년 2학기~), 음대기독교인연합, CCC, ABSK, 기독교학생클럽에 속해 있다.

비도덕적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윤성훈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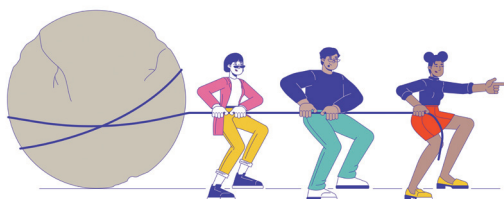
나는 대학 시절 한동대학교에서 좋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통해 삶과 신앙의 태도를 배웠다. 특히 '무감독 양심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는 훈련의 장이 되었다.

동시에 CCC에서 전도, 육성, 파송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 철없던 순원 시절을 지나 순장으로 살아가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와닿았다. 특히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18명의 후배들과 1:1 순도임을 진행하면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졸업 이후 진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제한하고 싶지 않았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 신중히 걸음을 옮긴 끝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현재의 직장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은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라는 말씀을 붙잡고 최선의 태도와 실력으로 직장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의 영적 멘토인 간사님은 '말씀'과 '태도'를 늘 강조하셨다. 그중에서도 "책임감(responsibility)은 반응(response)하는 능력(ability)이다"라는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책임감이란 주어진 상황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자주 하게 된다.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문제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렵다. 이미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경험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귀담아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도덕적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나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째, 책임감의 부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 당장의 이익을 따라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아닌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책임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훈련의 부재이다. 살다 보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 마치 '무감독 양심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얼마 전 강연에서 손봉호 교수님은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고, 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결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비도덕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글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졸업한 뒤 올해 2월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배운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서 남주자', '제자의 삶' 같은 가치를 어떻게 사회에서 실현할지 고민했다.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포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다.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역으로 데리고 가서 119를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 두 사람과 함께 남성을 겨우 역사로 옮겼다.

그때 스크린도어가 닫힌다는 안내가 나왔다. 어머니는 나보고 얼른 열차로 들어오라고 소리치셨다. 솔직히 잠깐 갈등했다. 그러나 곧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이 떠올라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결국 열차를 보내고 곁에 남았다. 다행히 구급대원들에게 무사히 인계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종 한동대 졸업시험을 통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에 옳바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이나마 변화될 것이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성훈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에서 경영학, 한국법을 전공하였다. 대학 시절 CCC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한동대학교 대표순장, 포항지구 총 순장으로 섬겼다. 현재 양일교회 청년부 소속이며, 고등부 교사 및 고등부 찬양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지는 질문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사회는 진영으로 갈라지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며, 책임보다 권리가 앞서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짓과 편법, 혐오와 폭력 등 비도덕적 세속화가 일상이 될 때 문게 된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가? 해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드라마 <참교육>(2026, 홍종찬 연출)은 이러한 질문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여준다. 학교폭력, 따돌림, 교사에 대한 모함,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민원, 촉법소년의 비행과 무너지는 교권 등이 과장과 풍자를 통해 등장한다. 문제 학교에 파견된 감독관 나화진(주연 김무열)은 강력한 힘으로 악을 응징한다. 시청자는 통쾌함을 느낀다. 현실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불의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이다!”라고 환호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

인간성의 위기

<참교육>이 보여주는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성의 위기(Crisis of Humanity)가 놓여 있다. 일찍이 C. S. 루이스는 <인간 폐지>(The Abolition of Man)에서 선과 악의 객관적 기준을 잃은 교육

이 결국 ‘기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철학자 로마노 구아르디니도 현대인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면서 그 힘을 책임 있게 사용할 인격은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았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서 있다. 권리는 커졌는데 책임도 함께 커졌는가. 지식은 많아졌는데 인간은 더 지혜로워졌는가.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간은 더 선해졌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비도덕성이 반복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일상화되어 사회에서 무감각, 무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에서 경고한 바 있다. 생각의 부재, 무반성, 주어진 체제와 규범에 아무런 비판 없이 복종하는 성향은 결국 가공할 죄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본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퍼지면 양심의 기준도 무너진다.

베드로의 검인가, 예수의 길인가

그리스도인은 비도덕성이 퍼져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검을 빼들었다. 불의를 힘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



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그렇다고 불의에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을 꾸짖으셨고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으며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악과 싸우기 위해 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음이 구별된다. 그것이 세속 사회에서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편법을 쓴다고 나도 편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증오한다고 더 큰 증오로 맞서서도 안 된다. 나아가 정치적 진영이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비도덕적 사회를 바꾸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으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도 아니

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마 5:13-14)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요청이다. 그러므로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분명해야 한다. 거짓이 많아질수록 정직해야 한다. 편법이 유리해질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혐오가 확산될수록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불의에는 저항하되 사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의와 사랑, 진리와 긍휼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 〈참교육〉의 응징은 순간적인 ‘사이다’를 준다. 그러나 복음은 깜짝 시원한 사이다보다 영원히 묵 마르지 않는 생수(요 7:38)를 제공한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힘보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 비도덕적 사회를 바꾸는 출발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정직한 한 사람, 책임지는 한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한 사람,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을 닦지 않으면서 악에 저항하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참교육’이 아닐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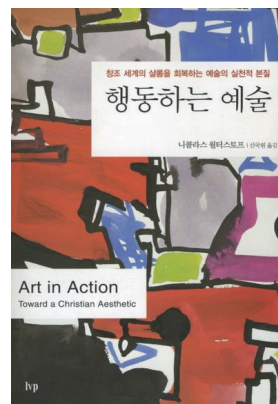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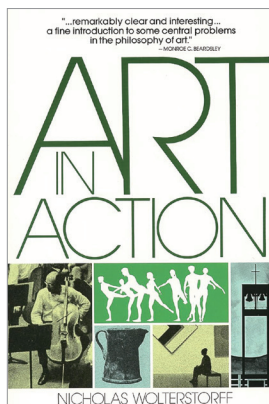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N. 월터스토르프의 Art in Action (1987)

개혁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가 일찍이 <행동하는 예술>(Art in Action, 1980, 신국원 역)에서 제기한 근대 미학의 도그마를 향한 문제의식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순수예술을 오직 ‘무관심적 관조(Disinterested Contemplation)’의 대상으로 가두려는 관행을 비판하며, 예술이란 삶과 동떨어진 관념적 객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월터스토르프에게 예술은 가정과 시장, 일터와 거리라는 일상적 지평 위에서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즉,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삶의 한복판에서 실질적인 사건과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행위라는 뜻이다.

이러한 통찰은 <다시 생각하는 예술>(Art Rethought, 2015)에서 한층 구체화된다. 전작이 예술작품의 자율성이라는 낡은 신화를 걷어내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 속에 어떻게 배태(胚胎)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면, 이 책에서는 아예 근대적 고급 예술 제도 밖으로 시선을

돌려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영토를 본격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하였다.

월터스토르프가 문제 삼는 것은 근대 이후 현대미술이 예술을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이러한 분리가 예술가들의 사고와 상상력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을 ‘근대 세계의 예술에 갇힌 터널 시야’라고 불렀다. 그 결과 작품에 담긴 ‘창작자-의미(Maker-meaning)’는 왜곡되거나 엘리트들의 지적 유희로 쪼그라들었다. 본래 예술가들은 공동체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부조리한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예술은 오직 예술계 내부의 문법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작품을 일상의 맥락에서 떼어내 하얀 벽에 박제해 버린 ‘화이트 큐브’의 폐해가 바로 이것이다. 일상으로부터 소외된 예술은 결국 세상에 참여해 ‘정의를 행하는’ 공적 생명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그가 복구해 내려는 것은 바

로 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예술'이 지닌 구체적인 유형들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정의'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마땅히 예우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먼저 링컨 기념관이나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벨파스트의 기념벽화, 마야 린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묘비석처럼 한 인격이나 사건에 온당한 경의와 존엄을 돌려주는 '기념 예술'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은 형식적 혁신성이나 탈맥락적 미적 완성도 등에 의존하는 순수예술의 잣대와는 다른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론과 관계 맺으며 거룩한 존재에게 예를 표하는 '공경을 위한 예술',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를 존엄한 인격체로 선언하는 '노동요', 그리고 케테 콜비츠의 관화나 해리엇 비처 스톤의 소설처럼 부당한 억압에 맞서 영혼을 내리치는 '사회적 저항 예술'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미적 책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나 자신을 향해 기어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눈물겨운 실천들이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은 현대 예술을 뒷받침해 온 두 가지 강력한 모델, 즉 아름다움만을 탐닉하는 '무관심적 관조'와 형식적 파괴만을 좇는 '예술 성찰적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월터스토프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예술과 이 두 유형을 대비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념과 공경, 노동과 저항이라는 사회적 실천의 심장부에는 자기만족보다는 타자나 자신을 향해 '정의를 행하려는(doin justice)' 맥박이 뛰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관심적 관조나 예술 성찰적 예술이 미학적 담론에 갇혀 예술계 내부의 혁신과 유희에 몰두한다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예술은 기꺼이 갤러리 밖 현실 세계로 뛰어들어 타인의 삶을 고양하고, 폭력에 맞서 피해자와 연대하며, 공동체의 상처를 부둥켜안는다. 예술의 형식 자체에 갇

히느냐, 아니면 예술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투쟁과 환대의 현장으로 나아가느냐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하는 셈이다.

제도권 미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월터스토프의 <다시 생각하는 예술>이 던지는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미술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본래의 생명력과 사회적 의미를 상실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책 말미에서 지적했듯이 그가 '정의'와 예술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이른바 '몰입적 관심을 위한 예술'의 독점을 꼽은 것은 그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월터스토프는 이 책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현대 예술 담론이 그간 안일하게 순수예술이라는 전통을 고수하는 데 안주해 왔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 삶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예술 형태들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월터스토프에게 예술이란 고상하게 감상하는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이웃을 기억하며 삶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구체적인 '인간의 실천적 행위'로 기술된다. 인간에게 허락된 예술이라는 선물이 미로 속에 갇히지 않고, 깨어지고 애도하며 기념 대상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월터스토프가 구상했던 예술의 모습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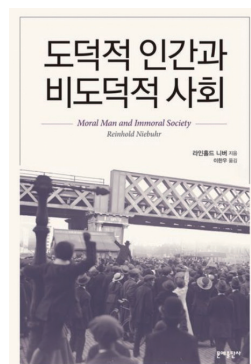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신실하시며,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이영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과정)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인홀드 니버, 문예출판사)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가지고 지난 여름방학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함께 모여 나눈 ‘제11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나는 발제자로 처음 참여했고, 신앙이 자리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기우였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니 은혜가 컸다. 게다가 북콘서트 토론 시간에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에 아쉬워하던 차에, 이렇게 서평을 쓸 기회도 생겼다. 그때 못다 한 말을 꺼낼 자리를 마련해 주시다니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개인적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 북콘서트에서 발제를 섬겼던 당사자로서 니버 책의 내용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한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사회윤리 논쟁서다. 1~3장은 개인의 도덕적 자원인 양심, 이성, 종교를 탐색하고, 4~6장은 국가와 계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해부하며, 7~10장은 정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를 묻는다. 신학적 접근보다는 대공황기 미국 사회를 향한 기독교적 해법 모색에 가깝다. 메시지는 명료하고 겨냥한 상대도 분명하다. 교

육과 계몽이 사회의 불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적 교육론이었다. 니버는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 목회를 하며 이 낙관주의의 무력함을 목격했고, 이 책은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특히 1~6장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내가 보기에 니버의 출발점은 관찰이다.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줄 알지만, 개인들이 모인 집단은 그렇지 않다. 1장은 개인 역시 완전한 도덕적 존재가 아님을 직시한다. 이어지는 두 장은 자유주의의 두 해법을 차례로 무너트리고 있다. 2장은 이성의 양면성을 소개한다. 이성인 개인의 도덕적 지평을 넓히지만, 동시에 자기 이익을 정당화하는 변호자이기도 하다. 가령 자기만족과 인정을 위한 이타적 기부에는 그 양면성이 모두 드러나 있다. 또한 교육으로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이 이중성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정리된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절대자 앞에서 인간은 자신을 낮추고, 종교적 양심과 통찰력으로 이기성을 극복하기도 한다.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종교는 이상적 사회를

상정한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자기 국가만 이성적이고, 특별한 사명을 지녔다고 여길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발발했다.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위험을 니버는 감추지 않는다. 니버는 집단의 이기성에 대해서, 국가 이기주의가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에서 나온다고 본다.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라는 그릇에 모아 담고, 국가는 국경 바깥에서 개인의 이타심을 아무 제약 없이 소비한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가 평화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영향력을 계산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니버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경계해야 함을 주장한다.

니버는 5장, 6장에서 특권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입장과 순환을 다룬다. 특권계급은 자기 이익을 보편적 이익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능하다고 본다. 시혜를 베푸는 손은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이 위선은 의식적인 기만이라기보다 자기기만에 가깝다. 특권계급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진심으로 믿기 쉬우며, 그 논리는 언젠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니버는 이것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편 이해관계에 서 있기에 상대의 눈가림용 포장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니버는 이러한 냉소적 입장이 특권계급의 위선보다 정직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피억압 계급도 예외 없이 자기 대의를 절대화하는 순간 같은 함정에 빠지고, 만약 권력을 잡게 되면 특권계급과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어느 집단에도 도덕적 면죄부를 주지 않는 니버의 이 균형감과 통찰이 이 책을 단순한 계급투쟁을 다룬 책과 갈라지게 한다. 우리는 역사적 고전 문헌을 읽을 때 저자의 환경,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

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평하는지가 저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도 복어를 요리하듯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시대적 배경과 사상을 알아두는, 즉 독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더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북콘서트의 질의응답 시간에 내가 받은 질문이 있다. “개인과 사회에 니버가 제시하는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때는 얼버무려 대답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제 총평의 형식을 빌려 답해 본다.

나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주어진 세상을 진단하는 책이라고 본다. 이러한 책은 으레 결말이 열려 있다. 그 결말의 빈자리를 독자들이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독자는 책을 읽은 후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요즘 자주 거론되는 이른바 ‘메타인지’를 더 잘 붙드는 것도 각자의 몫이다. 누군가는 나처럼 발제, 서평을 거치며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하다 주어진 달란트를 들고 살아가는 개인적 삶의 자리를 보게 될 것이다. 니버는 이 책을 저술할 때, 이 책이 백 년 후 한국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유익한 토론과 화합의 자리를 열어 줄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 그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신실하심에 미소가 지어진다. 니버는 본래 책 제목을 ‘비도덕적 인간과 더 비도덕적인 사회’로 짓고자 했다고 들었다. 이 제목이 더 잘 어울린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나는 머리로는 그렇게 읽되, 가슴으로는 ‘도덕적이고 싶은 인간과 더 도덕적이고 싶은 사회’를 소망하게 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영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의왕시에 소재한 경기중앙교회 청년이며 서울대학교 기독교생복클럽 멤버이다.

그리스도인의 영화 수업을 읽고

김대원 (기독교 작가)



〈그리스도인의 영화 수업〉 / 추태화 지음 / 세움북스 / 2026

가끔 서울을 방문하면 예배드리는 곳이 예수기쁨교회이다. 추태화 목사님은 그때 뵈었다. 늘 웃음과 여유를 지닌 채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에 “좋은 분이구나!”라고 스치듯 느꼈는데, “읽어보시라”고 건네주신 책을 읽으니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오랜 시간의 내공과 뛰어난 혜안이라는 알지 못했던 모습도 읽는다.

내게도 문화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한때는 선교 극단에 적을 두기고 했고, 문화 사역을 한다며 열정을 품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열정이 지난 이야기가 되어버린 내게 〈그리스도인의 영화 수업〉은 외면하며 살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여전히 진행형이라 질타했다. 책에 담겨있던, “복음 안에서 온몸으로 슬램덩크하라!”라는 선언 같은 권면에 전율을 느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한다.

책 제목은 ‘영화 수업’이라 하였으나 비단 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맞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끄집어 오고 깊은 혜안으로 우물

에서 생수를 길어 올린다

왜 영화일까? 그가 영화를 선택한 것은 ‘영화는 일상’이며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표현처럼 현대인들은 “날보러 와요!”라고 손짓하는 홍수같이 수많은 영상들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접근은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연결한다. 그래서 책은 중간중간 ‘더 깊은 이해와 토론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이 혼자 읽고 끝내지 말고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영역으로 이끌고자 하는 뜻이리라. “인간은 독립된 개체이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세상을 이끌었던 기독교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담을 쌓았다. 세상을 기피하고 그리스도인끼리 교회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고 성역화하며 스스로 거리를 벌리고 높은 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끼리끼리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사이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했다. 세상의 변화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도 달라졌으며 문

화적 소양도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정체되었고 늙어갔다.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 저자의 말을 빌어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란 사람들이 사는 공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된 곳을 말하기도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고전 10:23) 우리에게는 “영성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적 심미론(chrestian aesthetics)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조금 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될 때, 문화도 예술도 시대도 회복될 것이다.”, “의미는 진리에서 솟아야 한다.” 마치 그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권면을 대언하여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책이 지닌 강점 중 하나는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로서 긴박한 상황을 긴장감 있게 연출하여 극적 효과를 한층 끌어올린다.”라는 등 영상 자체에 대한 세밀한 접근과 날카로운 평을 들려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뚫어!... 이로써 삶의 묘미는 어려움,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생의 미학’(Aesthetics of Life)을 전해 준다.... 인생은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말이다.” 위의 내용처럼 책의 곳곳에 배치된 설교이면서 탈무드 같은 율림의 메시지가 독자를 풍요롭게 한다. 또한 예언자의 포효처럼 들려지기도 한다.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교육자로서 저자의 바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저자는 그것

이 이 책을 저술한 이유라고 했다. “확실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진실이다. 인간의 삶은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이다.” “영혼의 백야를 지날 때,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처럼 진리이신 하나님과 같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이끄시는 성령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종착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사명을 외면할 수 없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소명의 종소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계속 울리며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이 첨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대원



김해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믿음의 미로를 걷고 있는 기독교 작가이다.

광야교회의 쪽방촌 & 노숙자 섬김 프로그램



광야교회는 1987년 4월, 임명희 목사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칸에 세 평 남짓한 공간을 얻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섬기며 시작되었다. 이후 39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사역은 오병이어 무료 급식, 거리 노숙인 아웃리치, 중독 치유, 합동 결혼식, 장례 지원 등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도시 빈민의 몸과 마음, 영혼을 함께 돌보는 통합적 섬김으로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점심·저녁 세 끼를 나누는 오병이어 무료 급식소는 1992년 문을 연 이래 33년째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이어져 왔다. 노숙인 감소 등으로 식수 인원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지금도 하루 평균 300여 명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있다. 매주 금요일 밤과 한파 특보 시에는 임명희 목사와 봉사팀이 영등포역과 여의도 샹그라리 밑을 직접 찾아가 먹거리와 기도로 거리의 이웃을 위로하는 아웃리치를 28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겨울철에는 침낭과 내복도 함께 나누어 월동을 돕고 있다.

중독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중독성경치유’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일일 모임과 월 1회 2박 3일 합숙을 통해 상담과 노동, 운동을 병행하며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있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소외계층 커플에게는 결혼식과 신혼집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합동 결혼식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또 홀로 투병하는 이웃을 병원과 교도소로 찾아가 위로하고, 홀로 세상을 떠난 이웃의 마지막 순간에는 광야교회가 직접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드리며 존엄을 지켜드린다. 매년 11월에는 1,500여 명에게 겨울 잠바를 나누는 ‘광야인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사역은 사단법인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과 ‘광야홈리스센터’, ‘영등포쪽방상담소’로 제도적 뿌리를 넓혀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자”라는 광야교회의 변함없는 신앙과 백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야교회는 쪽방촌 공공개발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걷는 섬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난 세월 기도과 후원으로 이 사역을 묵묵히 지탱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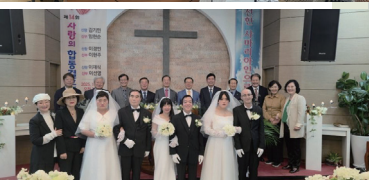


글쓴이 임명희

광야교회 담임목사이다. 1987년 영등포 쪽방촌에서 노숙인·쪽방주민 돌봄 사역을 시작하여 39년째 현장을 지키며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광야교회 교인 소감문

다시 태어난 인생 — 광야교회와 나의 이야기



나는 여덟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댁에서 자랐다. 어머니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며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마음이 무너졌던 시절이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다니며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새로 만난 어머니마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구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방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조차 나오게 되어 건강마저 허약해진 채 빈 병과 박스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주머니의 권유로 처음 인도된 곳이 영등포 광야교회였다. 밥 한 끼를 얻어먹던 제게 권사님이 예배에 와보라 권해주셨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터라 섣불리 문을 두드리기 어려웠다. 그러다 며칠 뒤 우연히 들려온 찬양 소리에 이끌려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길로 침터에 입소하여 ‘광야홀리스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담임목사님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허둥지둥 밥을 먹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전도팀을 따라 동네 어르신들을 심방하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 목사님과 사모님, 복지사님들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간호조무사 공부에도 도전하였다.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초등학교나 제대로 다닐까 걱정하셨는데, 대학도 나오고 군대도 다녀와 사람 구실을 하는 저를 보며 늘 고맙다고 눈물지으셨다. 이곳에서 웃으며 지내는 내 모습을 본 가족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마침내 국제성모병원에 취업하여 2026년 9월 15일부터 간호조무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광야교회는 정말 속에 있던 나를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준 희망의 자리였다. 이제 저도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시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신 광야교회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진수



광야교회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하며 신앙과 새로운 삶을 배운 청년이다. 현재는 독립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이어 간호조무사 공부에도 도전하여, 2026년 9월 15일부터 국제성모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새 출발을 시작한다.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발자취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개혁주의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해온 것이 특징이다. 삶 전체는 ‘하나님 앞’(coram Deo)에 있기에, ‘삶이 곧 종교’(life is religion)라고 믿어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를 배격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화되는 대신 적극 참여하여, 변혁시키는 열정을 지녔다.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이러한 통찰을 독일 철학자들의 ‘세계관’을 채용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사요 신학자며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칼뱅주의가 일종의 철학 체계라는 인식을 막기 위해 ‘삶과 세계의 조망’(levens-en-wereldbeschouwing)이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길은 칼뱅주의를 삶의 모든 국면에 실제적 규범으로 삼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총체적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 유산을 토대로 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적 바탕을 일구어낸 것은 카이퍼가 설립한 자유대학교 출신의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였다. 도예베르트는 카이퍼가 일으킨 운동이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정착되려면 포괄적인 세계관 체계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도예베르트는 본래 법학자였다. 그의 철학 체계는 이성인 세계의 기초가 된다는 서구문화의 상식을 비판한다. 특히 사상 체계가 무엇이건 종교적 기초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대와 사상의 흐름을 기독교적으로 비판하고 바로 잡고자 했다. ‘초월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이 바로 그 연구 결과이다. 또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이나 ‘영역 주권’ 사상을 더 깊고 건실한 성경적 기초에서 해석하고 보편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대 공헌은 서구문화 역사의 바탕에 깔린 네 개의 동인(ground motive)을 밝힌 점이다. 첫째,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그리스-로마 세계관을 꼽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을 따라 ‘형상과 질료’(form and matter)의 동인이라 불렀다. 둘째, 성경적으로 ‘창조-타락-구속’의 진리에 기초해 있다. 셋째, 스콜라철학에서 기원한 ‘은총과 자연’(nature and grace)의 혼합적 세계관이다. 성경적 종교의 동인과 그리스 종교의 동인을 하나의 체계에 종합하고자 했다. 넷째, 르네상스에서 싹튼 ‘자연과 자유’(nature and freedom)의 정신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

주목할 것은 도예베르트가 성경적 동인 외에 다른 동인들이 융합될 수 없는 두 개의 종교적 원리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 구조를 ‘종교적 대립’(religious antithesis)의 성격으로 설명한다. 이 대립은 이론적 통합으로는 결코 해소되거나 통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비성경적 세계관들은 모두 다원적인 종교에 뿌리를 두기에 통일된 문화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어느 하나가 억압된 상태로 발전하다 지나치게 되

위 글은 <AI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디자인하다>(익투스, 2025)에 게재된, 신국원의 “AI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기”의 ‘(1)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면 붕괴한다는 것을 역사적 예를 들어 보여준다. 반면에 ‘창조-타락-구속’의 하나님의 경륜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은 분열됨 없는 문화의 기초를 줄 유일한 것이라 주장한다.

카이퍼와 도예베르트 이후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네덜란드에만 머물지 않았다. 19세기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의 칼빈대학교(Calvin College)와 도트대학교(Dordt College), 1967년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된 기독교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를 통해 북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기독교학문연구소는 기초 연구와 저서를 통해 세계와 특히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브라이언 월쉬(Brian Walsh), 리처드 미들톤(Richard Middleton),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 낸시 퍼시(Nancy Pearcey), 마이클 고헌(Michael Goheen), 크레이그 바르톨로뮤(Crag Bartholomew),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 필자가 모두 이 연구소 일원들이다.

미국 철학자인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 북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회, 문화, 정치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칼뱅주의 종교개혁의 사회적 비전을 ‘채용’하려 하였다. 이 채용은 개혁주의 전통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세계형성적’ 추진력 약화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칼뱅주의자들은 성경대로 세계가 자연만 아니라 인간의 질서로 죄의 영향이 스며 있는 것을 보았기에, 세계가 하나님에게서 유리되지 않도록 재구성하려는 책임감과 열정을 가졌다. 월터스토프는 이러한 칼뱅주의자들이 자칫 승리주의(triumphalism) 또는 ‘지배 신학’(dominion theology)의 위험에 노출되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계형성적 특성을 잃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월터스토프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살롬’과 ‘정의’의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의 문화는 문화적 다원주의의 기초에 놓여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크랍바이크(J. Klapwijk)는 오늘날 세계관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계관’이던 “되찾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세계관의 각축장이 되다시피 한 오늘의 문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진리임을 입증할 방법은 신학과 철학적 논의로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문화적 힘으로서의 성경적 세계관을 보여주어야 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비전이 열매를 맺는다는 증거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실재한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신칼뱅주의 운동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교육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정권을 획득해 국가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들의 정황은 우리의 1980년대와 흡사하다. 카이퍼는 프랑스혁명의 인본주의 사상에 대항했던 ‘반혁명’ 정신을 자유주의와 은둔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회문화적 변혁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둔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이나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이 발전시킨 세계관 운동은 북미 대륙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뿌리를 거기로 뻗어간 것은 단지 신학적 친화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제11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

지난 2026년 8월 14일(금) 저녁부터 15일(토) 낮까지 ‘제11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콘서트’가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 11동 107호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 기독교학생 북클럽이 주최했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광동교회, 그리고 수많은 후원의 손길이 함께 했다. 이번 북콘서트의 목적은 2026년 1학기에 북클럽에서 읽고 나눈 기독교 윤리학의 고전,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지렛대 삼아서 전국의 그리스도인 청년 학생을 초청하여, 함께 ‘사적 신앙’(private faith)의 굴레를 넘어 ‘공적 신앙’(public faith) 회복의 필요성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자는 것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축복의 마중물로 세워져 갈 청년 학생 영혼 100명이 함께 하는 자리, 영성과 지성의 균형 잡힌 제자도를 서로 응원하고 함께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전체 참가 신청 등록자는 9개 대학교 102명이었고, 현장 80명, 온라인(Zoom) 22명이 함께 했다.

첫째 날(8월 14일 금요일, 저녁 7:00~10:40)에는 김다빈 박사(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의 사회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1~10장)를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인간과 사회: 함께 살아가는 법’은 김지민(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석박사통합과정), 2장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합리적인 원천들’은 이영희(서울대 천문학부 수리과학부 석사과정), 3장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종교적 원천들’은 김건우(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4장 ‘여러 민족의 도덕성’은 손민서(서울대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5장 ‘특권계급의 윤리적 태도’는 임태빈(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생), 6장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윤리적 태도’는 이은애(서울대 작곡과 학부생), 7장 ‘혁명을 통한 정의’는 정명현(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8장 ‘정치적 힘에 의한 정의’는 김소람(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9장 ‘정치에서 도덕적 가치의 보전’은 이혜란(서울대 원예생명공학부 박사과정), 10장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 사이의 갈등’은 류동주(서울대 로봇공학 석박사통합과정)가 발제를 맡았다.





둘째 날(8월 15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에는 윤준준 박사(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초청 특강과 패널 토론에 이어 전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특강 강사인 손봉호 교수(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아대책, 밀알재단 등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수십 개의 비영리 NGO의 설립을 주도하고 섬겨온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사회의 도덕성’을 주제로 왜 그리스도인에게 ‘공적 신앙’이 중요한가를 전했다. 두 번째 특강 강사인 조동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제분쟁, 핵무기 확산의 영향 등을 연구하는 국제정치 학자로서, ‘Paying Forward’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탈북자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속적으로 돕는 봉사를 해 왔는데, 이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는 말씀대로,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음을 나누었다. 또 초청 패널 이영조 교수(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계층 일반화 선행모형’(HGLM)과 ‘계층 유도’(Hierarchical Likelihood)’ 개념을 정립해 통계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지난 27년 영등포 쪽방촌과 노숙자, 그리고 자폐아 기관을 ‘pay back’의 조건을 달지 않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섬겨온 삶을 전했다. 이 순서 후에는 참여자 전체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열띤 자리를 이어갔다.

마지막 순서는 장요한 목사(서울대 북클럽 간사, 장신대 선교학 박사과정)의 인도로 이번 북콘서트에서 나눈 모든 내용의 은혜가 각자의 삶에서 열매 맺어가기를 서로 축복하고, 또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북콘서트는 광복절 연휴 기간이 포함되었음에도 많은 청년 학생들이 더 건강한 성경적 삶을 함께 모색한 이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믿는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학생들을 한국교회를 위한 축복의 마중물로 세우시고 풍성히 사용해 주시기를, 영성과 지성,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제자도로 잘 자라서 우리 시대의 가장 존귀한, 요셉, 다니엘, 다윗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제3차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시상식(자세한 안내 홈페이지 참조)

신청 및 제출 : 2026년 7월 20일(월) ~ 2026년 8월 31일(월)

시상식 : 2026년 10월 24일(토) 12:00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제43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주제 : 'AI시대 타락론 톺아보기'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12:3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주제강연 & 패널토의(13:00~16:00)

강연1 : 이승구 석좌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조직신학)

강연2 : 박희주 명예교수(명지대학교 / 과학사)

강연3 : 김태황 교수(명지대학교 / 국제통상학)

일반 주제 분과 발표회(16:00 ~ 18:00)

경제/경영, 인문학, 교육학, 기술과학, 사회과학, 세계관, 보건/의료, 공연/예술, 학제간 연구

* 논문 신청 및 요약본 마감 2026년 10월 6일(화) / 논문 전문 제출 마감 2026년 10월 9일(금)

* 문의 02-3272-4967 / www.gihakyeon@gmail.com(학회)

동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1권 3호 (9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31권 3호는 5편의 이월 논문 포함 30편의 논문이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12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명예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MEO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최용준(한동대 교수)

사무국

국장 안선자 실장 방윤미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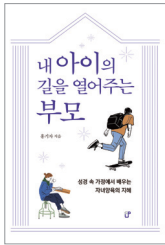


▶ CTC(유경상 대표)

- **지도자 과정** : 7기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기본과정 & 6기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감사과정 진행 중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과정** : 조지 오웰, <동물농장> & <1984> 개강
 - **대학 강의** : 아신대 :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개강 & 평택대 MTS : <기독교세계관>, 평택대 신학과 : <기독교 고전읽기>, <기독교 신앙과 현대과학> 개강.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6년 기독교 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수시모집)** : 기독교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재를 위한 '7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감사과정'을 모집한다
 - **출판 계획** : <다음 세대의 시작, 부모>(부모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지침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하나님, 꿈이 뭐예요?>
-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 2026년도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 홍기자 지음 | 376쪽 | CUP

“성경 속 가정에서 이야기로 배우는 자녀 양육의 지혜”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지만, 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어느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의 자리에서,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있다. 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길을 제시한다.

저자 홍기자 교수는 오랜 현장 사역과 기독교 교육학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와 가정의 연계,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2026년 6월, 2026년 7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6월	2026년 7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6월	2026년 7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1,840,000	1,04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690,000	61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290,000	4,325,000		소계	5,25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250,000	3,2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0	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30,914	135,789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0	1,240
	VIEW후원금	900,000	900,000		소모품비	0	0
	기타후원금	0	0		비품	1,831,000	0
	월보구독료	285,000	245,000		식비	381,700	304,4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625,820	563,320
	기타	0	35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예수금 지출액	468,430	488,08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소계	10,315,000	10,430,350		여비교통비	0	0
기타수입	일반이자	9,04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841,640	842,025
	법인세환급금	25,020	0		소계	901,365	901,75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51,88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40,69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수입액	486,820	486,820		소계	0	3,292,570
				기타	세금	55,240	0
					잡비	500	0
	소계	520,880	486,820		소계	55,74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459,710	1,956,16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700,000	200,000
					세계관기타	132,900	93,450
	소계	0	0		소계	1,292,610	2,249,610
학회	학회이사회비	120,000	120,000	학회	학회강사료	300,00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600,00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70,000	1,320,000		학술지인쇄비	0	2,913,700
	학술지계재료	4,500,000	31,000		학술지발송비	0	306,10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90,800	0		학회기타	0	0
	소계	4,780,800	1,471,000		소계	900,000	3,219,8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999,050	969,49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69,490	807,430
	전월 이니시스 입금	30,000	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470,000
	소계	1,029,050	979,490		소계	979,490	1,277,430
당월 수입액		16,645,730	13,367,660	당월 지출액		11,564,423	18,303,411
전월 이월액		21,437,290	26,518,597	차월 이월액 (잔액)		26,518,597	21,582,846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6년 6월)

5천 공승건,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익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박성태,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태, 고철용,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하,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정,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은덕, 김재만,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다니엘 김,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하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해민, 염동한, 오민욱,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 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근호,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장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보규,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웅,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원, 표민호, 한신영, 한화직,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인,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최수아,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문석운, 박기모, 박문식, 박홍식, 백은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태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순,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조성근, 5만 강다열,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박미연, 석종철, 송종철, 10만 김지원,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영순, 윤원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이신영, 최태연, 120만 양성만,

계 7,13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연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원돌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00,000원

전체 10,435,000원

회원후원

(2026년 7월)

5천 공승건,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대용, 강은정, 강혜영, 고용태, 고철용,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하, 김규욱, 김길원,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윤,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정,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은덕, 김재만,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다니엘 김,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하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현호,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인교, 배정은,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해민, 염동한, 오민욱,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 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장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보규,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근,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웅,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성탁,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원, 표민호, 한동빈,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인,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문석운, 박기모, 박문식, 박희일, 박홍식, 빛과소금교회,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구자영,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수지, 김예림, 김용봉, 김은서, 김하늘, 김호수, 류동규, 류영식, 문준호, 박신현, 박영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심양식, 윤준석, 이은실, 전상홍, 전주람, 정민, 조규창, 조신혜, 채수혁, 최동진, 최용준, 추명순,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5만 강다열, 고양제일교회,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다운공동체교회,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일원교회, 전희경, 정은애, 6만 석종철, 송종철, 8만 최영철, 10만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영순, 윤원철, 이성현, 12만 김민철, 김한동, 양지희, 장근배, 조혜선, 최태연, 황도훈, 15만 김세미, 최현일, 50만 신국원,

계 7,250,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연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원돌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00,000원

전체 10,550,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히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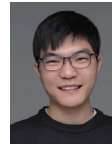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자세한 후원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전화해주십시오. 사무국 : 02) 754-8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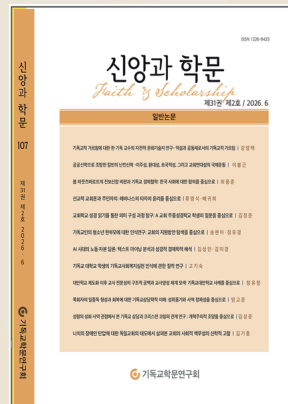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2월호(31권 4호)
투고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5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 투고 규정 8.(3)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각주 예시 확인
 - * 투고 규정 10.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 40만원), 전일제 대학생 15만원으로 게재료 인하, 심사료 7만원 신설
 -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추가
 - * 논문 심사 세칙 제2조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